

## 광주시 “민선8기 강기정호 ‘새로운 광주시대’ 연다”

### 지난 1일 취임식...경제·문화·복지 등 분야별 정책 제시 “시민 삶 바뀌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대 열겠다” 다짐

광주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열어 나갈 민선8기 강기정호가 뜻을 올리고 힘차게 출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4대 광주광역시장 취임식을 갖고 민선8기 광주시정을 시작했다.

취임식은 역대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교육감, 자치구청장, 전남도 축하사절단, 시의원, 주요 기관장, 대학총장, 기업인,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취임선서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 시장은 기존 관행처럼 잃어 내려가던 식의 취임사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시정철학과 로드맵을 밝혔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 신경제지도'와 '광주 신 활력특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 신경제지도는 기존 제조업과 인공지능 산업에서 확보한 경쟁력은 확장하고,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국제마이스 등 5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광주 신활력특구는 즐길거리가 부족하던 도시에서 맛을 알고 멋을 아는 '재미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게 된다.

또 '온종일 돌봄'을 통해 장애인부터 영유아, 어르신까지 교육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에 놓아 모든 시민 중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로 조성한다.

강 시장은 "이 모든 변화는 시민과 공직자의 소통과 결합을 전제로 한다"며 "광주 변화의 동력은 '공직

자의 창의성'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광주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왔으며, '의무'와 '당위'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며 "일을 통해 나 자신이 빛나고 나의 오늘만이 아니라 나의 내일도 빛날 수 있도록, 민선8기 광주 시정은 창의적 행정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만들어 자신의 내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50플러스 세대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나의 삶'이 빛나고 미래보다 더 가까운 '내일'이 빛나는 광주가 되도록 하겠다"며 "머금었던 빛을 발산하는 도시, '기회도시 광주'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대 광주광역시장 취임식에 참석해 민선8기 시정방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서 광주독립운동기념탑, 광주학생 독립운동기념탑,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데 이어, 시청 기념식 동산에서 전남도 취임 축하

사절단과 함께 기념식수를 했다.

취임식이 끝난 이후에는 MZ세대 공직자들과 집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

다. 오후에는 119종합상황실, 재난 안전상황실, 연주동CCTV관제센터 등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유빈 기자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미국 IIHS 충돌평가 최고 등급 획득

### 6개 충돌 안전 항목,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 기록

현대자동차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아이오닉 5가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이하 TSP+, Top Safety Pick+)'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번째 모델인 동시에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

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최초로 적용한 차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자동차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 및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매긴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 (driver-side small overlap front) ▲조수석 스몰 오버랩(passenger-side small overlap front)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 충돌(side) ▲지붕 강성(roof strength) ▲머리지지대(head

restraint) 등 6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훌륭함(good)' 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과 차량 / 차량과 보행자)에서 '우수함(advanced)' 이상의 등급을, 전조등 평가에서 '양호함(acceptable)' 이상의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TSP+ 등급은 위 조건에 더해, 전체 사양의 전조등 평가에서 양호함 이상 등급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아이오닉 5는 6개 충돌 안전 항

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물론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탁월함(superior)' 등급을 획득했다. 전조등 평가에서는 전 트립에서 양호함 및 훌륭함 등급을 받았다.

현재까지 현대차에서 TSP+ 등급을 받은 차종은 아이오닉 5를 포함해 투싼, 쏘나타, 팰리세이드, 넥쏘 등 5개 모델이며, TSP 등급은 아반떼, 쏘나타, 베뉴, 싼타크루즈 등 4개 차량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처음 적용한 아이오닉 5가 이번 결과를 통해 최고 안전성을 입증해 보였다"며 "앞

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브랜드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오닉 5는 지난 10월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me)'에서 최고 안전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며 안전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 지난해 말 출시된 아이오닉 5는 올해 5월까지 1만대 이상 판매되며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조용히 압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문수 기자

**함평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함평 사과, 함평 배, 함평 감, 함평 사과, 함평 배, 함평 감